

[1] 강세구(姜世龜)<1632~1703>

자는 중보(重寶)요, 호는 삼휴당(三休堂)이며, 호(鎬)의 아들이다. 문과 급제하여 삼사와 승지, 예조참의를 거쳐 충청감사에 이르렀다. 청백리에 선발되고, 가선대부 참판에 승진했으며, "자모록소"를 올렸다가 홍원으로 유배되었다. 사후에 신원되어 용호사에 배향했다. 묘는 온양 서봉산에 있다.

[2] 강 첨(姜籤)

자는 공신(公信)이요, 호는 추월헌(秋月軒)이며, 본관은 진주이니, 이지당(二芝堂)이며, 운상(雲祥)의 아들이다. 선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참판, 부제학, 대사헌에 이르렀고, 부월을 가지고 지방을 순찰하여 탐관오리를 숙청했다. 벼슬이 참판이 지위에 올랐으나 집안에는 한 섬의 곡식을 담을 그릇이 없었고, 대문에는 뇌물이 끊어졌다. 광해군 때에 치제하였다.

[3] 공장렬(孔章烈)

자는 사신(士新)이요, 호는 구암(龜菴)이며, 본관은 곡부(曲阜)이니 공자의 74세손이다. 가정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시부에 재주가 뛰어났으므로, 지은 시가 일만여 수에 이르러, 사람들이 시호라고 일컬었다. 벼슬은 교원을 역임했다.

[4] 권정인(權定仁)

본관은 안동이며, 헌납(獻納) 중헌(中憲)의 아들인데, 진사에 합격했다.

[5] 김 구(金鉤)< ? ~1462>

자는 직중(直中)이요, 호는 송정(松亭)이며 본관은 경주이니, 대사헌 광주(光粹)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문과급제하여 대제학, 판중추부사에 올랐다. 경학이 정박했으며, 성균관에 벼슬할 때에 가르치기를 게을리 함이 없어 윤상이후에 제일인이라고 하였다. 단종초에 나라의 형세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아산 땅으로 은거하여 오교대(五敎胎)를 축조하였다. 세조가 제학의 벼슬을 주고, 아홉 차례나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왕이 크게 노하여 벼슬을 삭탈하여 서인을 만들었다. 성종때에 신원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를 문장이라 했다. 묘는 아산현 일북면 사기동에 있다.

[6] 김 덕 문(金德文)

자는 성백(聖伯)이요, 본관은 경주이며, 전서(典書) 자정(子汀)의 후손이다. 인조때에 훈련첨정의 벼슬을 하였고, 이괄의 반란에 진무 원종 공신이 되었다. 군자감정을 추증했다.

[7] 김 명(金銘)

무과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8] 김 상 만(金尙晩)

자는 중이(重爾)요, 본관은 경주이며, 전서(典書) 자정(子汀) 후손이다. 현종때에 수직으로 가선대부가 되었다.

[9] 김 선 신(金善臣)

진사 사범(思範)의 아들인데 형은 잔사 선민(善民)이었다. 형과 더불어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글씨와 그림을 잘하여 사람들이 그의 재주를 칭찬했다. 벼슬은 참봉을 지냈다.

[10] 김 시 주(金時 主)

조선시대에 정사를 맑고 간편하게 하였으며 청백리로 유명하다.

[11] 김 여 물(金汝)<1548~1592>

자는 사수(士秀)요, 호는 피구자(披子)이며, 본관은 순천이니, 평양부원군 승주(承)의 후손이다. 선조때에 문과 장원 급제하여 의주 목사를 지내고, 임진왜란에 신입장군을 따라 충주 단월역으로 달려가 조령(鳥嶺)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형을 살펴본 다음 이렇게 건의했다. "이렇게 산세가 험한 곳을 지켜야 적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신입장군은 이말을 따르지 않았다. 김여물은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아들 유에게 편지를 써 주었는데, 그 내용은 "삼도에서 군사를 불러 모았으나, 한 사람도 오는 자가 없구나, 사나이가 나라 위해 죽을 곳은 바로 여기로다."라고 하였다. 신입은 군사를 이끌고 충주 탄금대에 주둔하여 왜군을 방어하다가 패하여 함께 순국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의관으로 안산에 다 장례를 지냈으며, 영의정을 증직하고, 순창부 원군을 봉하여 시호를 장의라 하고 충신장려를 명했다.

[12] 김 유(金 鈞)<1571~1648>

자는 관옥(冠玉)이요, 호는 북저(北渚)이며, 본관은 순천이니, 장의공(壯毅公) 여물(汝)의 아들이다. 인조때에 정사영국 일등 공신에 책록되었고, 승평 부원군에 봉하여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를 문충이라 했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하고, 부조묘를 명했다.

[13] 김 한 로(金漢老)

자는 양지(養之)요, 호는 죽포헌(竹圃軒)이며, 본관은 경주이니, 학주(鶴州) 홍욱(弘郁)의 현손이다. 영조때에 참봉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진사를 거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삼사의 벼슬을 거쳐 판서에 이르렀으며, 청백리로 유명했다.

[14] 김 행 도(金行濤)

고려 태조때에 아주제군사가 되어 아산 지방을 다스린 청백리이다.

[15] 김 현 성(金玄成)<1542~1621>

자는 여경(餘慶)이요, 호는 남창(南窓)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명종 19년(1564년)에 문과 급제하여 동지돈녕부사를 지냈다. 시를 잘하고, 필법은 조송설(趙松雪) 체를 따랐다.

[16] 김 홍 욱(金弘郁)<1602~1654>

자는 문숙(門叔)이요, 호는 학주(鶴州)이며, 본관은 경주이니, 단구자(丹邱子) 적(積)의 아들이다. 인조때에 생원 진사에 합격했으나 그 방을 파하였으므로, 다시 진사에 합격하여 문과에 급제했으며, 한림이 되었다. 병자호란(1636년)에 척화를 주장했으며, 삼사와 이조정랑, 응교, 사인등의 벼슬을 거쳐 당진의 수령이 되었고, 호서의 안찰을 하여 대동법을 창설했다. 갑오년(1654년)에 황해도 관찰사로서 강빈의 원옥사건을 구하기 위한 상소를 올렸다가 효종의 미움을 받아 서울로 잡혀와 국문을 받다가 졸하였다. 송시열과 송준길이 건의하여 관직이 회복되고, 이조판서를 추증하여 시로를 문정이라 했다. 문집이 있고, 성암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지재(趾齊) 민진후가 행장을 지었다.

[17] 남 경 문(南景文)

본관은 의령이며, 구정(龜亭) 재(在)의 아들이다. 세종때에 무과급제하여 병조의랑을 지냈으며, 영의정을 증직했다.

자는 희숙(禧叔)이요, 본관은 의령이며 충신 국신(國信)의 아들이다. 인조 병자호란 뒤에 세상일을 사절하였고, 포저 조익의 천거로 감역, 주부벼슬을 주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으며, 여생을 그대로 마쳤다.

[18] 남 을 번(南乙蕃)<1320~1395>

본관은 의령이요, 부사(副使) 군보(君甫)의 증손이다. 고려의 밀직부사로서,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아들 재의 공훈때문에 찬화공신의 호를 내렸으며, 벼슬은 문화 시중에 이르고, 의령 부원군을 봉하였으며, 시호는 경렬이라 했다.

[19] 남 재(南在)<1351~1419>

초명은 겸(謙)이라 하고, 자는 경지(敬之)이며, 호는 구정(龜亭)이니, 본관은 의령이다. 명신 을번(乙蕃)의 아들인데, 고려조에 진사로서 경국제세에 뜻을 두어 조선 태조 대왕과 함께 개국에 참여했다. 태조가 이름을 재(在)라 지어주고, 개국 일등공신에 채록되었으며, 의령 부원군이 되고, 영의정을 지냈다. 시호를 충경이라 하고, 태조의 묘정에 배식되었으며, 부조묘를 명했다.

[20] 남 효 온(南孝溫)<1454~1492>

자는 백공(伯恭)이요, 호는 추강(秋江)이며, 본관은 의령이니, 직제학(直題學) 간(簡)의 증손으로 진사에 올랐다. 18세때에 소릉(昭陵 : 단종의 생모 현덕 왕후의 능)의 복구를 세조에게 상서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일찌기 육신전을 지었는데, 그 문인들이 큰 화가 이를 것을 두려워하여 저술을 하지 말라고 건의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며 대현의 자취를 없애지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또 야사를 지었다. 연산군때 갑자사화(1504년)가 일어나자, 소릉 회복 상소문 때문에 남효온의 무덤을 파헤치는 화를 입었다. 정조때에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으며,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영월의 창절사에 배향되었다.

[21] 맹 세 형(孟世衡)

자는 여평(汝平)이요, 호는 하곡(霞谷)이며, 본관은 신창이니, 명신(名臣) 사성(思誠)의 후손으로 사계(沙溪)의 문인이다. 인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안동부사가 되었으며, 병자호란(1636년)이 일어나던 해에 선산에 수령으로 있었는데, 오랑캐 침입의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 남한산성을 달려가고자 했으나, 경상감사의 명령으로 중지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입근, 수용, 척화등 10여가지 사항을 주장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으며, 봉사 1책이 있다. 이조참판, 제학을 추증했다.

[22] 박 건 양(朴健陽)

진규(晉揆)의 아들인데, 진사로서 참봉을 거쳐 현감에 이르렀다. 백성을 아끼고 정사를 간소하게 하였으며, 장수하여 첨지중추부사에 승차했다.

[23] 박 권(朴權)

자는 이경(而經)이요, 호는 고광(孤光)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오한(五恨) 성건(成乾)의 아들이다. 문과 급제하여 정언이 되었으며, 연산군에게 상소를 올려 충간하다가 길주로 유배되었고, 다시 해남으로 옮겨다가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중종때에 대사간의 벼슬을 내려 불렀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기묘 명현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농암 김창협이 행장을 지었고 축정서원에 배향되었다.

[24] 박 기 조(朴起祖)

자는 기지(起之)요, 호는 수남(水南)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유일(遺逸) 지양(知讓)의 손자이다. 진사가 되어 의흥, 임천, 평산의 수령을 역임하고 한성서윤을 지냈다. 인현왕후가 궁중에서 사제로 물러나왔을 때에 과거 급제가로서 홀로 나아가 절하고, 적막한 환경에서 군신과 모자의 의미를 다했다. 영조때의 영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박기조가 홀로 서궁에 배

알하여 그 의리가 송갑조와 다름이 없으니, 마땅히 포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특별히 이조참판을 추증하였다.

[25] 박 세 무(朴世茂)<1487~1554>

자는 경번(景蕃)이요, 호는 소요당(逍遙堂)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이조판서에 추증된 중검(中僉)의 아들이다. 중종때에 진사와 문과에 급제하여 사국의 직서로 있었는데, 당시의 감안로와 이기가 국정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미워했다. 벼슬을 군자감정에 이르고, 동몽선습을 저술했는데, 영조의 서문과 문정공 송시열의 발문이 있다. 예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으며, 괴산의 화함서원에 배향했다.

[26] 박 의 화(朴義和)

자는 공리(公利)요, 본관은 함양이며, 유현(儒賢) 지계(知誠)의 후손이니, 문경공(文敬公) 중주(中州) 이직보(李直輔)의 문인이다. 정조때에 진사에 급제하여 여러차례 참봉으로 발탁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27] 박 지 양(朴知讓)

자는 득경(得卿)이요, 호는 도촌(陶村)이며, 본관은 함양이니, 소요당(逍遙堂) 세무(世茂)의 손자이다. 문장, 행실, 학문이 뛰어났으며 인조때에 육품(六品)의 벼슬에서 직급을 뛰어넘어 광흥(廣興)군수가 발탁되었고, 참판 벼슬에 이르렀다.

[28] 박 수 림(朴守林)

본관은 초계이며, 현감 자호(自浩)의 손자인데, 음사(陰仕)로 현감(縣監)을 지냈다.

[29] 성 문 준(成文濬)

초명은 문부(文傅)이며, 자는 중심(仲深)이요, 호는 창랑(滄浪)이니 선정(先正) 혼(渾) 아들이다. 진사로서 세마를 지냈고, 학문으로 천거되어 사단이 되고 영동고들의 원이 되어 치적을 남겼다. 경서에 힘쓰고, 병이 나서도 중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파주의 경현사에 배향되었다.

[30] 성 수 심(成守 心)

자(字)는 중옥(仲玉)이요, 호는 청송(聽松), 또는 우죽(又竹), 우당(雨堂)이라 하고, 본관은 창녕(昌寧)이니, 정암(靜菴)의 문인이다. 행실이 돈독하고 학문에 힘써, 정석현감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기묘사회에 많은 현인들이 참화를 입는 것을 보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파평산 아래로 돌아왔다. 우의정을 증직하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으며, 파주의 파산서원에 배향하였다.

[31] 송 서(宋瑞)< ? ~1353>

본관은 여산인데, 낙랑부원군 분()의 아들이다. 고려 충렬왕때 순성보리익찬공신이 되었고, 삼충대광도첨의정승, 판전리사사, 상호군의 벼슬을 지내고 치사했다. 여량부원군에 봉하여 식읍삼백호를 내렸고, 시호를 정가라 했다.

[32] 신 말 주(申末舟)

자는 자즙(子楫)이요, 호는 귀래정(歸來亭)이며, 본관은 고령이니, 고령부원군 암헌(岩軒) 색(穡)의 아들이다. 문과 급제하여 집의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다. 정축년(1457년)에 단종을 영월로 유배하자, 벼슬에 뜻이 없어, 순창에 귀래정을 지어 10여명의 노인들과 더불어 시를 노래하며 생애를 마쳤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깨끗한 충절을 칭찬하였고, 나라에서는 이조참판을 추증했다. 순창의 화산서원에 배향했다.

[33] 신 유(申濡)

자는 군택(君澤)이요, 호는 죽당(竹堂)이며, 본관은 고령이니, 귀래정(歸來亭) 말주(末舟)의 후손이다. 인조때에 전사가 되고, 문과 장원급제하여 예문관의 벼슬을 지냈고 영국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효도하고, 우매하고, 청수하고,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병자호란 이듬해인 정축년(1637년)에 세자를 모시고 심양에 들어갔다가 돌아왔고, 계미년(1643년)에는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왔으며, 임진년(1652년)에는 연경에 다녀왔다. 벼슬은 예문관 직제학에 이르렀고, 문집이 남아있다.

[34] 신 재 동(申在東)

본관은 평산이며, 대사헌 사달(思達)의 증손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35] 안 경 공(安景恭)<1347~1421>

자는 손보(遜甫)이며, 본관은 순흥이며, 명신 축(軸)의 손자이다. 재국삼등공신이 되고, 문과에 급제하여 보국영삼사사, 집현전 대제학을 지내고, 흥령부원군이 되었으며, 시호는 양도이다.

[36] 안 승 선(安崇善)<1392~1452>

자는 중지(仲止)요, 호는 용재(壅齊)이며, 본관은 순흥이니, 호조판서 순(純)의 아들이다. 태종때에 문과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좌참판, 병조판서에 이르고, 시호는 문숙이라 하였으며, 예장을 명하였다. 매죽당 성삼문이 신도비의 비문을 지었다.

[37] 안 유(安裕)<1243~1306>

초명은 향(珦)이었는데, 임금님의 이름과 같아서 개명했다. 자(字)는 사온(士蘊)이요, 호(號)는 회헌(晦軒)이며, 본관은 순흥이다. 밀직부를 지낸 부의 아들로서 고려 원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첨의중찬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좋아하여 항상 회암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존경하며 사모했다. 학교가 쇠퇴하는 것을 근심하여 석학전을 마련하였으며, 중국에 들어가서 공자의 70제자 초상화를 그리고, 또 제기와 악기, 육경, 제자, 사서 등을 구입해 가지고 돌아와서 문묘를 창설하고 제생들을 교육했다. 시호는 문성이며, 충숙왕 때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38] 안 처 의(安處義)

무과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39] 안 축(安軸)<1282~1348>

자는 당지(當之)요, 호는 근재(謹齊)이며, 본관은 순흥이니, 제학(提學) 석(碩)의 아들이다.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고, 원조의 과거에도 급제했다. 벼슬은 도첨의 찬성사, 대제학을 지내고 흥령부원군을 봉하여 시호를 문정이라 했다. 소수 서원에 배향되고 문집으로 근제집이 있다.

[40] 오 달 주(吳達周)

자는 계현(季賢)이요, 본관은 해주이며, 명신(名臣) 윤겸(允謙)의 아들이다. 벼슬은 금구현령을 지냈고,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는 안산 잉화곡에 있다.

[41] 오 수 헌(吳遂憲)

자는 군범(君範)이요, 본관은 해주이며, 명신(名臣) 윤겸(允謙)의 증손이다. 92세의 장수를 하여 수직으로 동지 중추부사를 지냈다. 묘는 안산 잉화곡에 있다.

[42] 오 윤 겸(吳允謙)<1559~1636>

자는 여익(汝益)이요, 호는 추탄(秋灘)이며, 본관은 해주이니, 영의정에 추증된 희문(希文)의 우계의 문인으로, 벼슬에 나아가, 삼년동안 정사가 되어 수로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광해군때에는 인목대비 폐모 논의를 준엄하게 배척하고, 정인홍을 물리치고 퇴계와 회재 두선생에 대한 무고를 변호했다.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고, 세자의 사부를 지냈으며, 문집이 남아있다.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43] 유 악 주(兪岳柱)

병사 정(挺)의 후손인데, 문과 급제하여 대사간을 지냈다.

[44] 윤 인(尹)

자는 인지요, 본관은 파평이니, 대사간(大司諫) 절()의 손자다. 중종때에 무과 급제하여 승지가 되었는데,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여덟살에 부친을 여의고, 장성해서 추복을 입었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칭찬했다. 힘써 학문을 닦아 스스로 금지를 지냈으며, 시율이 맑고 건실하였고, 필법이 예스러웠다. 여러차례 문과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여 투필하였으며, 아홉 차례나 주의 목사를 역임하면서 유명한 정사를 많이 베풀었다. 일찌기 호조낭관으로 있을때 왕의 탐전에서 문신들의 재주를 시험하는데 장원을 했다. 왕이 상으로 도화마한 필을 주면서 시를 지으라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지어 올렸다고 한다.

龍駒初出渥 津 용마가 처음 악와나루에 뛰어나라
走入桃源避虐秦 진시황의 학정을 피해, 도원으로 달려갔네
背上落花風不掃 말잔등의 낙화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至今猶帶武陵春 지금도 오히려 무릉도원 봄기운을 띠고 있네

[45] 윤 철(尹哲)

자는 희점(希點)이요, 본관은 파평이며, 태위(太尉) 안비(安庇)의 후손이다. 세종때에 무과 급제하여 대사간이 되었고, 연산군때에 직언을 하여 화를 입었다. 중종때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46] 윤 춘 수(尹春壽)

혜정을 베풀어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편안했으며, 청맥으로 유명했다.

[47] 윤 훈(尹)<1676~1725>

자는 회보(晦甫)요, 호는 천서(泉西)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니, 참판을 지낸 매음 근(根)의 현손이다. 수암의 문인으로 경종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벼슬을 했다. 학문이 크고 깊어 낙론을 주장했고, 강문 팔학사 가운데서 한사람이 되었다.

[48] 이 계(李穡)

자는 군식(君式)이며, 본관은 연안이니, 인충(仁忠)의 손자이다. 중종때에 남부 참봉을 지냈고, 중종 2년(1507년)에 의과에 역모사건을 토벌하여 정난원 증공시에 책록되었다. 경서

에 밝고, 행실이 엄하여,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조참판을 추증하였다.

[49] 이 광 식(李宏植)

자는 번보(蕃甫)요, 본관은 전의이니, 문의공(文義公) 언충(彦冲)의 후손이다. 세종때에 구례 현감을 지냈고, 효행이 특히 뛰어났다. 이조판서를 추증했다.

[50] 이 단 석(李端錫)<1623~1688>

자는 유초(有初)요, 호는 쌍호당(雙壺堂)이며, 본관은 완산이니, 경명군(景明君) 침(沈)의 후손이요, 청백리 제형(霽衡)의 아들이다. 현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러, 유장으로 천거되어 북병사가 되었다. 청백리로서 이조판서, 양관대제학에 추증되고 장천서원에 배향되었다.

[51] 이 선 복(李善復)

자는 백길(伯吉)이다. 호는 북촌(北村)이며 본관은 전의이다. 선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예문관과 홍문관의 벼슬을 거쳐 이조정랑이 되었으며, 의주부윤을 거쳐 병조참판이 되고 부제학에 올랐다. 이조판서를 추증했다.

[52] 이 성(李晟)

고려 충렬왕때에 과거 급제하여, 운수 감무로서 온양 지방을 다스렸는데, 청백하기로 이름이 알려졌다.

[53] 이 열(李 열)

자는 자흥(子興)이요,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순신(舜臣)의 아들이다. 선조때에 음사(蔭仕)로 벼슬에 나아갔다가 광해군 때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인조반정으로 처음에는 충훈부 도사가 되었다가 형조 정랑이 되었다. 집안에 비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광해군이 그 비자를 취하고자 명령을 내렸으나, 신자의 도리로서 임금에게 미색을 비치는 것은 불충이 된다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바치지 않았다.

[54] 이 영 성(李永成)

본관은 용인이며, 문과 급제하여 정랑을 지냈다.

[55] 이 익 운(李益運)<1748~1817>

호는 학록(鶴麓)이며, 정운(鼎運)의 아우이다. 재학과 덕망이 뛰어났고, 행실이 고상하여, 학식이 넓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어난 천성을 지녀, 여덟살 때에 영조 임금께서 사랑하시어, 굴 두개를 주시면서 시를 지으라고 운자를 불렀다. 그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橘自江南至 굴이 강남에서 이르르니
秋色滿宮香 가을빛이 궁중에 가득하여 향기롭구나
聖人親手賜 성인께서 친히 손으로 주신 이것을
歸獻我爺孃 돌아가 내 어버이에게 바치리

정조 때에 문과 급제하여 인조판서를 지내고 시호를 정숙이라 했다.

[56] 이 익 태(李益泰)

자유 대유(大裕)요, 호는 야계(冶溪)이며, 본관은 연안이니, 만오당(晩悟堂) 돈형(惇亨)의 아들이다. 현종때에 문과 급제하여 이조좌랑, 교리, 수찬을 역임하고, 숙종때에 호당에 선발되었으며, 여덟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송우암과 김문곡을 위하여 신원소를 올렸다가 임실땅으

로 유배되었으며, 송우암이 사사되자, 힘을 다하여 호송하는 일을 도왔다.

[57] 이 인 충 (李仁忠)

자는 회지(誨之)요, 본관은 연안이며, 형조판서 귀산(貴山)의 증손이다. 세조때에 문과 급제하여 부승지를 지냈고, 윤필상의 중사관이 되어 함경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를 격파하여 적개원중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청백리로 이름이 알려졌다.

[58] 이 필 춘(李秘春)

본관은 전주이며, 강양군(江陽君) 요의 후손인데, 진사에 급제했다.